



김윤세 로타리코리아 이사장

“봉사·나눔 확산…한국로타리 100주년 준비 박차”

김윤세 로타리코리아 이사장 취임 100일
전남광주서 63년 만에 이사장 배출 눈길

사단법인 로타리코리아 김윤세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로타리 100주년 기념사업과 로타리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했으며, 이튿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내년(2027년) 한국로타리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로타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에서 63년 만에 로타리코리아 이사장이 배출됐다는 점에서 지역 로타리인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저서 ‘로타리안 김윤세’ 출간과 도서 기증 등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유은하원 총동문회와 국제로타리 3710지구, 주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의 봉사활동과 민간외교 활동을 담은 책은 로타리 정신과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어 지난 9월 30일 한국로타리 회관에서 열린 도서 기증 전달식에서는 인터랙트·로타렉트 클럽에 도서 500권을 전달했다. 젊은 세대가 로타리의 봉사 정신을 이해하고 미래의 봉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로타리안 김윤세’는 조철현 작가가 집필하고 도서출판 라운더바우트가 출간했다. ‘가장 잘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로타리 정신을 바탕으로 김 이사장의 기증전 봉사활동과 민간외교 행보를 담았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로타리 100주년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등 로타리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로켓배터리’ 이의순 세방그룹 명예회장 별세

향년 104세…보성 출신 1세대 기업인
광주공장에 분향소…사회환원 등 헌신

국내 물류와 자동차 축전지 산업을 개척한 보성 출신 1세대 기업인 이의순 세방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104세.

1923년 보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제강점기 일본 오사카 외국어대학교에서 수학한 뒤 해방 후 외자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경제개발 초기 구배·조달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인의 길에 들어섰다.

고인은 1960년 국내 최초의 해운사인 한국해운(株)을 설립하며 해운·물류산업 현대화의 기반을 닦았다. 이를 토대로 세방(株)과 세방전지(株), 세방익스프레스(株), 세방산업(株)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세



방그룹을 물류서비스와 자동차 축전지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집단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자동차 축전지 브랜드인 ‘로켓배터리’를 통해 그룹의 산업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 항만 하역과 물류서비스에서 자동차 축전지까지 사업영역을 넓혀며 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고인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의 책임과 민간외교의 역할도 강조했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 등을 받았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의 훈장도 수훈했다.

평소 신용과 정성,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삼위

훈’을 삶과 경영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경영철학은 융화와 협조, 책임의 완수, 창의와 노력, 친절과 봉사 등 세방그룹의 기업정신으로 이어졌다.

사회환원에도 각별한 뜻을 뒀다. 2007년 사재를 출연해 세방이의순재단을 설립하고 소외계층 지원과 인재 육성, 노인·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재단의 주요 사업인 ‘희망스위치 ON’은 2008년 보성군에서 시작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확대됐다.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아동의 복지 여건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유족으로는 아들 이상웅 세방그룹 회장과 두 딸 등 1남 2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세방전지 광주공장 명예회장 기명관에도 분향소가 설치됐다. 발인은 14일 오전 6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지역 강점 살려 군민 체감할 변화 만들터”

김현미 장흥군 부군수 부임…농업·해양·관광 등 행정전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군 부군수에 김현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군 농업정책과장이 부임하며, 장흥군 첫 여성 부군수 탄생을 알렸다.

김현미 신임 부군수는 해남 북평면 출신으로, 1992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전남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서 농업·해양·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아온 행정 전문가다.

특히 장흥군 최초의 여성 부군수로서 새로운 시각과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 행정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김현미 신임 부군수가 그동안 쌓아온 농업·해양·관광·조직관리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민선9기 군정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농생명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등 주요 현안에도 풍부한 행정 경험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김현미 신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군 부군수(오른쪽)가 사문 장흥군수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군청

김현미 부군수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 지원을 위해 장흥군인재육성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현미 부군수는 “장흥군 첫 여성 부군수라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돼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흥의 강점과 가능성을 잘 살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정보석, 나주에 4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지역 발전·나눔문화 확산 힘 보태
“고향 나주 널리 알리는데 더 노력”

‘국민배우’로 사랑받고 있는 정보석씨가 고향 나주를 위해 4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주시에 따르면 반남면 출신으로 ‘나주영산강축제’ 홍보대사로 3년째 활약하고 있는 정보석 배우는 최근 ‘2026 나주영산강축제’ 주무대에서 윤병태 나주시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정보석 배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시작된 지난 2023년부터 4년째 꾸준히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며 나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영산강축제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기부는 축제를 찾은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와 지역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보석 배우는 “내 고향 나주를 잘 지키고 잘 가꾸어주신 나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나주의 홍보대사로서 나주를 널리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까지 4년째 꾸준히



나주영산강축제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정보석 배우는 최근 ‘2026 나주영산강축제’ 현장에서 윤병태 나주시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나주를 응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정보석 배우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

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 고분전시관에 마한 토기호 기탁

4세기 제작 추정…학술·문화재적 가치 주목

김관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주시의회 의장이 개인적으로 소장해 온 4세기경 마한 토기호(土器壺)를 나주 북암리고분전시관에 기탁했다.

기탁된 토기호는 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타날무늬 토기로, 영산강 유역에서 형성·발전한 마한 토기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특히 발굴 과정에서 여러 조각으로 출토돼 복원되는 일반적인 토기와 달리 거의 온전한 형태로 보존돼 있어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관용 의장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물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보다 시민 모두가 함께 보고 배우며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보존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노력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북암리고분전시관은 영산강 유역의 고대 역사와 마한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을 전시하고,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12일 김관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주시의회 의장이 마한 토기호(土器壺)를 나주 북암리고분전시관에 기탁했다.

사진제공=나주시의회



새마을지도자전남도부녀회는 최근 고흥군 팔영체육관에서 전남광주 22개 시·군 부녀회원과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한마음 어울마당’을 개최했다.

전남광주 새마을부녀회원 한자리…봉사·화합 다져

아내 봉사 뒷받침한 남편에 ‘외조상’ 수여도

전남광주지역 새마을부녀회원 9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회원 간 화합을 다졌다.

새마을지도자전남도부녀회는 최근 고흥군 팔영체육관에서 전남광주 22개 시·군 부녀회원과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한마음 어울마당’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시·군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시상식, 축하공연, 회원 화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축하공연과 화합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회원 간 유대를 다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결속을 다졌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상과 통합시의회의

장상에 더해 부녀회원들의 봉사활동을 결서 지 원해 온 남편들에게 ‘외조상’을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외조상은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아내를 응원하고 뒷받침해 온 가족의 노고를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이 회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가족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경옥 새마을지도자전남도부녀회장은 “부녀회원들의 봉사에는 가족의 이해와 응원이 큰 힘이 된다”며 “아내의 봉사를 응원해 준 남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외조상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